

# 시민 생명 구한 소방관에 '의로운시민상' 수여

### 남원소방서 소속 김형학 소방위, 산책 중 세병호 얼음 깨지며 물에 빠진 학생 2명 구조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 구조에 희생정신을 발휘한 김형학 소방위(남원소방서 소속)에게 전주시로부터 '의로운시민상'이 수여됐다.

지난달 30일 송천동 소재 세병공원을 산책하던 김형학 소방위 눈앞에 세병호 얼음속에서 위태롭게 허우적거리는 학생들 나타났다.

이에 김 소방위는 주저없이 얼음속 호수로 뛰어드는 행동을 보이며 학생 2명을 구조했다.

자기安危는 뒤로한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집념속에 이뤄진 구조는 김 소방위의 값진 의로움으로 보여져 사회귀감의 대표가 됐다.

이날 김 소방위의 구조과정에서도 남다른 행위를 돋보였다.

한과속 물속에서 조차 김 소방위는 아이의 체온증상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꼭 껴안은 채 구조했다.

특히 김 소방위는 구조과정에서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 구조에 희생정신을 발휘한 김형학 소방위(남원소방서 소속)에게 전주시로부터 '의로운시민상'이 수여됐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소

중한 생명을 지켜낸 것이다.

김형학 그는 시민의 생명과 맡은 바 직업에 대한 남다른 투지를 돋보이게 했던 구조 역활이기도 하다.

김형학 소방위는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소방관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역량의 책임을 말했다.

또 그는 "겨울철 안전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빙판위 또는 블랙아이스 등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생활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시는 인명 구출과 재난방지, 현행법검거 등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시민에게 '의로운시민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청소년·아동 이용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 전주완산소방서, 선제적 안전 확보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겨울철 방화기간 동안 청소년과 아동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오늘 2월 1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대책은 청소년, 아동이 자주 찾는 시설에 대해 선제적 화재위험요인 제거로 안전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현행행정을 통해 시설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의 의식을 확립하며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불시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나홀로 아동 대상 소방안전교육 △

청소년, 아동의 안전의식향상 홍보 등이다.

특히 '화재 예방조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피난계획 수립, 피난시설 관리 사항 확인' 등의 화재안전 조사 실시와 '영화관, 신종 실내 놀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현장행정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방화기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아동, 소년소녀가장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대피 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방화기간 동안 청소년, 아동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설 연휴 기간 현장 출동 184건

덕진소방서는 지난 설 연휴 기간(1.20~1.25)동안 '화재·구조·구급' 등 총 184건 현장 출동 내용을 알렸다. 이에 김현철 덕진소방서장은 "설 연휴 동안 특별경계 근무를 통해 현장 출동 태세 확립과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체계 확립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경계 근무 기간 현장출동 결과를 살펴보면 덕진구에서는 총 4건의 화재 발생, 이로 인해 2092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관련해 '2일 만성동 아파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부동산과 동산 등 330천원의 피해가 발생, 24일

덕진구 전미동 담배꽂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로 컨테이너 한 동이 전소, 1102 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설 연휴 기간 147건의 구급, 26건의 구조, 7건의 생활안전 현장에 출동했으며, 134명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에 이송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도민 안전을 책임져 준 모든 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소방서에서는 새해에도 더 안전한 전주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올해 전주시 시민기록관 1호 기증물 '전주의 찬가' 레코드판

### 김선경 전북CBS 대표 기증

전주시는 1972년 제작된 '전주의 찬가' 레코드판을 25일 전주시청에서 2023년 전주시 시민기록관 1호 기증물로 기록했다.

전주시민기록관에 기증된 2023년 첫 번째 기록물은 1972년 제작된 '전주의 찬가' 레코드판으로, 기증자는 김선경 전북CBS 대표다.

김선경 대표는 책장 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온 '전주의 찬가' 레코드판을 전주의 역사로 남기면서 전주시민 모



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증했다. '전주의 찬가'는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전주의 모습을 '완산 칠봉 넘어오는 봄 아가씨는/ 개나리 저교리에 진달래 처녀/ 풍납문 돌아서 오실 때에는 / 어느새 정이 드는 전주라네' 등 전주의 풍경을 흥겨운 리듬과 가사로 표현했다.

1987년 인후3동 주민센터로 지어진 전주시민기록관 지상 2층 건물 자체로 또 하나의 기록이며, 시는 건물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외관 수선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항온항습·소방·방범 등 수장고로서의 내부 기

능 보강해 재건축해 운영하고 있다.

흥겨운 '전주의 찬가' 기증으로 시작된 전주시민기록관은 올해 제12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과 마을 기록 아카이빙, 시민기록물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시는 낡은 앨범 속 사진, 먼지 쌓인 서재의 책 한 권, 거미줄 처진 창고 속 손때 묻은 생활용품 등 지금이 아니면 사라질 전주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 관리,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 돕는다

### 덕진보건소, 10개 지역아동센터 대상 구강검진 등 운영

덕진보건소는 '구강건강, 음주 예방, 영양, 운동, 흡연 예방' 등 아동·청소년기 올바른 건강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와 체험을 마련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주지역 10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4일까지 운영

할 방침이다.

이에 덕진보건소는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치아 흡 메우기와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 진료와 충치 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칫솔에 따른 구강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칫솔질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올바른 구강 관리를 이어가는

도움을 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 교육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주요내용에는 '인스턴트 식품 열량과 6대 영양소 교육 및 음식 지방 모형관람(영양교육), 청소년기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양교육 및 음주가상고글체험, 음주퍼즐(음주예방교육), 담배 유해성분(전자담배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알아보기(흡연 예방교육), 건강생활을 위한 청소년 운동지침 교육 및 체성분 측정(신체활동교육) 등이 있다.

김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구강, 음주·흡연 예방, 운동, 영양(비만)' 등의 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 및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신규 공무원 임용식 가져

전주시 완산구는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식을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25일 진행했다.

이번 임용식은 새내기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공무원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로서 '임용장 수여, 공무원선서, 인사말, 기념촬영' 순으로 마련됐다.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인고의 노력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전주시가 되어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항상 시민을 위한 공익을 내세워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산구에 배치된 신규 공무원들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신규 임용을 통해 후속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고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